

# 도 학교급식 수산물 30%가 수입산

### 황주홍 의원, 올해 상반기 30.6%가 수입산... "국내산 사용 확대에 국가가 나서야"

전북지역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먹는 수산물의 30%는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전국 학교급식에 사용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2013년 30.1%에서 2014년 30.3%, 2015년 31.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수산물의 30.6%가 수입산으로 급식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30.2%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급식한 농산물의 수입산 비중 0.1%와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국에서는 강원도(45.6%)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36%), 경기(33.5%), 인천(32.2%), 경북(30.9%), 충북(30.5%)의 순이었다.

이어 대구(27.6%), 부산(26.3%), 충남(25.3%), 대전(23.4%), 경남(22.5%), 세종(21.7%), 울산(21.7%), 제주(15.2%), 광주(11.3%), 전남(8.7%)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자료도 별반 차이가 없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만

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2억8,347톤(4,925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7.9%인 7,918톤(1,476억원)이었다. 급식대상 학생 수 6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약 1.3kg(2만4천원 상당)의 수입 수산물을 섭취하는 셈이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016년 6월 기준 전국 1만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1억3,645톤(2,579억원) 가운데 수입산은 28.9%인 3,950톤(82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학교급식에서 국내 수산물 사용 비중이 낮는데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납품 요구와 급식 예산의 한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등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

고 파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학교에 급식하는 수산물의 수입산 비중이 30%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의 국내산 사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입산 수산물의 식재료 사용은 자칫 저품질 수산물 사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산 사용 확대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군산전북대병원, 사정동 건립

### 변경안 확정... 2021년 완공 · 총사업비1853억원

환경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군산 사정동 일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새 부지 선정 및 사업비 마련 안이 최종 승인됐다.

전북대학교병원과 군산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총사업비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산전북대병원의 사업부지 변경 및 기간연장, 총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병원은 옥산면 당북리 백석계 일원에서 군산시 사정동 일원으로 부지가 변경됐다.

건립기간은 당초(2013~2017)보다 4년 연장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병상규모(500병상)는 기존과 같고 부지변경으로 발생하는 총사업비는 1,853억원으로 조정됐다.

변경된 총사업비에 물가변동 분은 반영된 총사업비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 정식 개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부지매입, 설계공

모 등 병원 건립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부동산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군산시에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요청했다. 군산시는 병원 부지에 대한 사전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행위제한 구역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의료소외지역인 군산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상급의료시설 서비스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10만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에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국제진료센터·건강증진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연구지원센터 등의 종합의료시설을 갖추게 된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군산시 일대의 의료수요를 반영한 진료특성화와 하이브리드수술실 도입, 통원수술 기능강화, 의료 IT화 등 의료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병원 건립을 계획 중이다. /고민형 기자 · 군산=문정근 기자

## 전주대 나노신소재공학과 이공계 학과평가 '상' 호남 1위

전주대학교 이공계열이 대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12일 전주대에 따르면 최근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6 대학별 이공계 주요학과 평가에서 나노신소재공학과가 이공계열 학과평가 종합부문에서 '상' 등급을 받았다.

이는 광주와 전남북 소재의 대학들 가운데는 최고 성적이다.

전국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는 고려대, 포스텍, 한양대 등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

전주대 나노신소재공학과는 특히 국제학술지논문피인용실적 지수 3488로 KAIST의 3364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내학술지논문피인용실적에서도 0.754로 성균관대 0.308과 월등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번 평가에서 전주대 기계자동차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는 국내학술지논문피인용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전임교원 1인당 외부지원 연구비에서 기계자동차공학과는 3억4,800만원으로 전국 9위에 올랐다.

컴퓨터공학과는 유지취입률 100%로 전국 72개 대학 중 1위에 올랐다.

전주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강홍석 교수는 "우리 학과는 양자역학 계산, 나노 물질의 전자구조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증명된 토폴라스트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체코 '유프라하의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1호 기업이 탄생했다.

## 제너럴네이처 등 4개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 체코 '프라하의골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1호 기업 탄생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국가식품클러스터 3차 분양공모 결과 제너럴네이처(주), (주)케미드, (주)239바이오, (주)에스디디 등 총 4개 기업이 이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제너럴네이처(주)'는 곡류효소 및 청국장 분말을 활용한 유산균 제형개발을 추진해 3,792㎡를 분양받아 2018년 생산시설 설립 후 중화권 및 아프리카에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주)239바이오'는 귀뚜라미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2,862㎡를 분양받아

2017년 초 생산시설 설립 계획이다.

'(주)케미드'는 식품첨가물 전문기업으로서 식품제조 혼합제제 제품개발·생산라인 확충을 위해 4,113㎡를 분양받아 2017년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SCDD'는 국내산 김 무역회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1,675㎡를 분양받아 2017년 생산시설을 설립 등반아 등 해외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계약을 체결한 4개 기업은 "세계 식품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선

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8일 체코 '유프라하의골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1호 기업이 탄생했다.

한국 및 동북아 맥주시장 진출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한 '유프라하의골드'는 외국인 계약 부지 16,500㎡에 체코 전통 양조시설과 체코 맥주 문화체험 공간 등을 공장과 함께 2017년 초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유)프라하의골드는 'Praha 993'이라는 브랜드명으로 2016 부산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맥주를 생산하여 시판하고 있다. /익산=정원형 기자

## 최상목 기재부 차관, 군산 전통시장 민생 점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추석맞이 민생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12일 군산시 신영동에 위치한 공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와 함께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농수산물 물가 동향과 가뭄피해에 따른 물품 판매현황 등을 질문했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나눴다.

최 차관은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

한 물품을 관내 경로복지시설에 전달해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최 차관은 인근시장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목 차관은 "군산을 방문하게 되어 뜻 깊다"며 "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적극 반영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전북교육청, 대승한지마을과 체험활동 업무협약

전북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원주 대승한지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12일 본청에서 학생 진로직업 체험 및 한지문화 확산을 위해 대승한지마을(관장 이명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지마을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전북의 한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세부 협약 사항으로 학생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위한 한지 생산과 제작 체험처 제공, 한지 문화 체험 및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직업세계 이해와 한지 문화 확산 노력 등이 있다.

대승한지마을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고려지 원산지인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한지체험관과 한지 생활사전시관과 승지관, 동양산업조합과 출판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돕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